

# 전남·광주, 행정통합 연계 초광역 산업협력사업 시동

###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화순 백신·광주 AI 기반 의료기기 등... 국가산업 핵심거점 기대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협력의 첫 전격사업으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 대응에 나서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두 시·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기관 주요 인사도 자리를 함께해 단지 조성에 힘을 실었다.

위원회는 선경 K-미래헬스추진단장과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산·학·연·병·관 각 분야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단지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 특별법 개정 대응과 국비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지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도걸·전진숙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전남·광주는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공동 대응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추진되는 초광역 산업협력 일환이다. 전남의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광주의 AI 기반 의료기기·디지털헬스산업역량을 연계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원원 부지사는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은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공동 대응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비해 전남과 광주가 가장 준비된 최적지임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가 들어서면 백신, 면역치료제, AI 의료기기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생태계'가 구축돼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수 기자



### 정청래 "충남대전 통합 위해 장동혁에 공식회담 제안" "정쟁은 시간만 허비... 회담 시간·장소 장동혁 뜻 따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전했다.

이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 견해차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몽로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의 유효성을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

미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 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다"며 "성 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이달 중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 모두에 광역단체장을 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법안이 미비하며 충남대전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상임위 처리에 비협조했다. /뉴스시스

☎062-525-9775

### 한-브라질, 수교 67년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미래산업 협력 로드맵 채택 경제·과학·농업 협력 심화하기로... MOU 10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2026~2029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은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K-뷰티 및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룰라 대통령과 함께한 언론 공동 발표에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정치, 경제,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를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향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보건, 중소기업, 농업, 치안 등 분야에서 총 10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 등을 맺고 고위급 경제무역관계 위원회와 차관급 경제·금융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브라질 내 한국 농약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의 항공 분야 협력과 더불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세계 최대 수준의 희토류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광물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확대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투자를 유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보와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의지를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또 두 정상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AI 기본사회'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한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중남미 정상의 방문이자 21년 만에 성사된 국민 방문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스시스

제 27회 — 구례에 피어는 노란 설렘

# 구례산수유꽃축제

초대장  
구례 산수유꽃 축제

산수유가 깨우는 봄, 그 찬란한 시작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6. 3. 14.(토) - 3. 2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

개막식

일시 : 2026. 3. 14.(토) 오후 3시  
장소 : 산수유꽃축제 상설무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관길 45)

• 손태진과 함께 ~

주최/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Gurye Sansuyu Flower Festival Propulsion Committee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군 GURYE County